

# 『겐지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벚꽃의 상징성

김 정 희  
(단국대학교)

## I. 서론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서는 여성이 꽃에 비유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비유 표현으로서의 꽃에 대한 연구로서는 가와조에 후사에(河添房江)씨<sup>1)</sup>와 하라오카 후미코(原岡文子)씨<sup>2)</sup>의 논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겐지모노가타리』 이전의 모노가타리와 후기 모노가타리의 예까지 조사하여 모노가타리 문학 안에서 꽃의 비유 표현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명백히 하고자 한 것으로, 직유로서 사용된 꽃의 표현뿐만 아니라 은유, 풍유 등 비유표현의 영역을 넓게 확대시켜 모노가타리, 특히 『겐지모노가타리』에서의 꽃의 비유표현이 여성들의 주제적 위치를 상징하고 있음을 밝혔다. 후자의 경우는 벚꽃의 비유 표현에 초점을 맞춰, 제1, 2부에 벚꽃이 등장한 부분에는 금기 침범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논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단지 벚꽃이 지니는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노가타리 구조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벚꽃의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河添房江「花の喩の表現史」『源氏物語表現史』翰林書房, 1998

2) 原岡文子「『源氏物語』の「桜」考」『源氏物語の人物と表現』翰林書房, 2003

## II. 고대의 벚꽃 이미지

일본의 고대 문헌에서는 일찍부터 벚꽃에 대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빠른 예<sup>3)</sup>로 『니혼쇼키(日本書紀)』에는 벚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8년 봄 2월에 후지와라에 남시어 몰래 소토오시노이라쓰메의 모습을 보냈다. 그날 밤 소토오시노이라쓰메는 천황을 그리워하며 홀로 있었다. 천황이 계신 줄을 모르고 노래 부르기를,

오늘은 나의 남편이 꼭 오시는 밤입니다. 거미의 행동이 오늘밤에는 특히 눈에 띄니까요.

라고 말했다. 천황은 이 노래를 들으시고 감동하여 노래 부르시기를, 잔잔한 모양의 면끈을 풀어서 며칠 밤이라도 자고 싶지만 그것도 어렵구나. 단 하룻밤만 자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아침 천황은 우물 옆의 벚꽃을 보시고 노래 부르시기를,

벚꽃의 아름다움이며, 어차피 사랑하게 될 거라면 빨리 사랑하면 좋을 것을. 나의 사랑스런 여인이여.

라고 말씀하셨다. 황후는 이것을 들으시고 또한 굉장히 원망하셨다.

八年の春二月に、藤原に幸し、密に衣通郎姫の消息を察たまふ。是夕、衣通郎姫、天皇を恋ひたてまつりて独り居り。其の天皇の臨せることを知らずして、歌して曰く、

我が背子が来べき夕なり ささがねの蜘蛛の行ひ 今夕著しもといふ。天皇、是の歌を聆しめして、則ち感情有しまして、歌して曰はく、

ささらがた 錦の紐を 解き放けて 数多は寝ずに 唯一夜のみとのたまふ。明旦に、天皇、井の傍の桜の華を見して、歌して曰はく、

花ぐはし 桜の愛で こと愛でば 早くは愛でず わが愛づる子ら

3) 벚꽃의 용례에 대해서는 広川勝美編『源氏物語の植物』笠間書院, 1982을 참고로 하였다.

とのたまふ。皇后、聞しめして、且大きに恨みたまふ。

(119)<sup>4)</sup>

후지와라(藤原)에 간 인교천황(弁恭天皇)은 그곳에서 소토시노이라쓰메(衣通郎姫)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 저녁 그 여성은 홀로 천황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읊는다. 이것을 들은 천황은 감동을 받아 와카(和歌)를 읊고, 그 이튿날 아침 어제 그 여성을 우물가에 피어있는 벚꽃에 비유하면서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고 한탄하는 노래를 읊는다( 밑줄부분). 이 여성은 황후의 동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황후는 크게 원망한다. 밑줄부분의 천황의 와카에서 쓰인 벚꽃은 아름다운 여성, 소토시노이라쓰메를 상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만요슈(万葉集)』에도 벚꽃의 용례는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사람들이 아끼는 꽃이라고 하면 매화를 들고, 벚꽃은 헤이안(平安) 시대에 애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실제로 『만요슈』에 나타난 매화의 용례는 119수, 벚꽃은 42수이고 「꽃(花)」 중에서도 명확히 매화를 의미하는 것은 19수 정도, 벚꽃을 가리키는 것은 22수 정도로 매화의 용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벚꽃 역시 『만요슈』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5)</sup> 이 가집에서의 벚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용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벚꽃이 봄의 경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작자의 애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테를 지나서 온 이토카산의 벚꽃이여, 돌아갈 때까지 지지 말아라.

1212 足代過ぎて糸鹿の山の桜散らずあらなむ還り来るまで

아시히키산의 벚꽃이 며칠이나 이처럼 피어 있다면 왜 그토록 기다리겠는가.

1425 あしひきの山桜花日並べてかく咲きたらばいと恋ひめやも

4) 小島憲之, 直木孝次郎他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日本書紀』②, 小学館, 1996

5) 原岡文子, 상계서, p.387

다쓰타산에서 보면서 넘어온 벚꽃은 이미 저버렸을까, 내가 돌아가기  
도 전에.

4395 龍田山見つつ越え来し桜花散りか過ぎなむわが歸るとに

1212번가는 아테(足代)를 지나서 온 이토카산(糸鹿山)의 벚꽃이며, 돌아갈 때까지 지지말아라라고 해석된다. 1425번가는 아시히키산의 벚꽃이 며칠이나 이처럼 피어 있다면 왜 그토록 기다리겠는가라는 의미이다. 4395번가는 다쓰타산(竜田山)에서 보면서 넘어온 벚꽃은 이미 저버렸을까, 내가 돌아가기도 전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용례를 통해서 벚꽃이 작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벚꽃의 용례 중에는 앞서 본 『니혼쇼키』의 예처럼, 아름다운 여성의 비유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다.

아쓰미노오기미가 구메노이라쓰메에게 보낸 노래 한수

집에 피어 있는 벚꽃은 솔바람에 저버렸을까.

厚見王の久米女郎に贈れる歌一首

1458 屋戸にある桜の花は今もかも松風疾み地に散るらむ

구메노이라쓰메가 응답하여 보낸 노래 한수

세상도 무상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벚꽃도 이미 저 버렸을 겁니다.

久米女郎の報へ贈れる歌一首

1459 世間も常にしあらねば屋戸にある桜の花の散れる頃かも

아쓰미노오기미(厚見王)가 구메노이라쓰메(久米女郎)에게 보낸 1458번가는 집에 피어 있는 벚꽃은 솔바람에 저버렸을까라는 내용의 노래로, 언뜻 보기에 단지 경물을 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성을 벚꽃에 비유하여 자신을 기다리다가 지쳐 다른 남성에게 마음을 준 것은 아닌가하는 여성의 변심을 의심하는 남성의 불안한 심정을 읊은 노래이다. 여기에서 「지다(散る)」는 여성의 변심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메노이라쓰메의 답가는 세상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벚꽃도 이미 저 버렸을 겁니다라고 오히려 남성의 변심을 노래하면서 벚꽃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을 탓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 두 수의 와카에서 벚꽃은 여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벚꽃을 여성에 비유한 또 다른 예로서 다음의 와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옛날에 한명의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사쿠라코라고 하였다. 그 무렵 두 명의 젊은이가 있어 모두 사쿠라코를 사랑하였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다투고, 죽음도 불사하며 경쟁하였다. 그래서 사쿠라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옛날부터 들은 적도 본적도 없다. 한명의 여자가 두 명의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두 사람의 청년의 마음은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다. 내가 죽어서 싸움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사쿠라코는 그대로 숲으로 들어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죽어버렸다. 두 명의 남성이 비탄에 잠겨 옷가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각자 만든 노래 2수

봄이 되면 머리장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벚꽃은 저 버렸구나.  
부인의 이름과 인연이 있는 벚꽃은 꽃이 피면 언제나 그리울까. 때때  
 가 지날 때마다.

昔者娘子ありき。字を桜児と曰ふ。時に二の壮士あり。共にこの娘を誂ひて、生を捐てて競ひ、死を貪りて相敵る。ここに娘子歎歎きて曰はく「古より今に至るまで、聞かず、見ず、一人女の身の、二つの門に往適くといふことを。方今、壮士の意和平び難きものあり。妾が死にて、相害ふこと永く息まむには如かじ」といふ。すなはち林の中に尋ね入りて、樹に懸りて経き死にき。その兩の壮士哀慟に敢へずして、血の泣襟に漣れ、各々心緒を陳べて作れる歌二首

3786 春さらば挿頭にせむとわが思ひし桜の花は散りにけるかも

3787 妹が名に懸けたる桜花咲かば常にや恋ひむいや毎年<sup>6)</sup>

사쿠라코(桜児)가 죽은 뒤에 읊은 두 남자의 노래 속에서 그녀는 벚꽃으로 비유되고 있다. 특히 3786번가에서는 봄이 되면 머리장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벚꽃은 저 버리고 말았구나라고 하여 두 남자의 구애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한 소녀의 죽음이 벚꽃이 저버리는(「散る」)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

6) 中西進校注『万葉集』①-④, 講談社文庫, 2002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벚꽃이 금새 저버리고 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 또는 죽음과 같이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만요슈』의 1212번, 4395번가에 나타난 작자의 벚꽃에 대한 애착도 사실은 이 벚꽃이 쉽게 저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따라서 고대의 벚꽃의 이미지는 봄의 경물로서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죽음, 불안정함, 허무함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헤이안 시대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킨슈(古今集)』에는 벚꽃을 읊은 와카가 봄을 대표하는 경물로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散る」라는 표현과 결합된 노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7)</sup>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 벚꽃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면, 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편안했을 것을.

53 世の中にたえて桜のなかりせば春の心はのどけからまし  
벚꽃색으로 옷을 물들여서 입자. 꽃이 저 버린 후 그것에 의지하여  
그리워하기 위해서.

66 桜色に衣は深く染めて着む花の散りなむ後の形見に  
봄 안개는 어찌서 벚꽃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적어도 지는 동안만이라  
도 보고 있고 싶은데.

79 春霞なにかくすらむ桜花散るまをだにも見るべきものを  
봄 안개가 길게 끼어있는 산의 벚꽃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데 것처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당신입니다.

684 春霞たなびく山のさくら花見れどもあかぬ君にもあるかな<sup>8)</sup>

53번가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빨리 저버리고 마는 벚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는 작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66번가는 꽃이 저버린 것이 아쉬워 벚꽃 색으로 물들인 옷을 보며 그것을 떠올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수

7) 平沢竜介「古今集における想像力—桜の歌群の分析を通して—」『日本文学』1984, 9, p.62

8) 『古今集』의 인용은 『新編国歌大観』小学館에 의함.

모두 저버린 벚꽃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지만 두 번째 예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미 저버린 꽃에 대한 강한 미련을 엿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킨슈』의 벚꽃에 관한 와카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안개와 벚꽃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가 79번가와 684번가로, 전자는 지는 동안만이라도 벚꽃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안개가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후자는 희미한 안개 속에 피어 있는 벚꽃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벚꽃과 안개가 결합된 예는 『만요슈』에는 2수에 불과한데 비해 『고킨슈』에서는 10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센슈(後撰集)』, 『슈이슈(拾遺集)』에도 이러한 형태의 와카가 증가하여 『고킨슈』를 계기로 와카 속에서 벚꽃과 안개라는 요소가 하나의 표현으로서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벚꽃은 고대부터 아름다움과 허무함이라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며, 바로 그 때문에 저버린 후에도 집착을 버릴 수 없는 매력적인 꽃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안개 속의 벚꽃이라는 『고킨슈』가 정착시킨 새로운 이미지가 한층 더 꽃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이상적인 여성의 상징

앞장에서는 와카 속에서 나타난 벚꽃의 이미지와 그 벚꽃이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겐지모노가타리』에서도 다양한 장면에서 벚꽃의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벚꽃이 사용된 예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 이전의 모노가타리 속에서는 벚꽃이 여성의 비유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가 『우쓰호모노가타리(うつほ物語)』의 1예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답게 한창일 무렵의 벚꽃이 아침이슬에 젖어있는 듯한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비단과 같은 광택으로 반짝반짝 윤이 나고

面白く盛りなる桜の、朝露に濡れ合へたる色合ひにて、御髮

は螢しかけたるごとして

( 蔵開上472 ) 9)

이 장면에서는 나카타다(仲忠)와 결혼한 온나이치노미야(女一宮)가 임신한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려내고자 벚꽃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모노가타리 안에서 벚꽃이 여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가 적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겐지모노가타리』에서 등장하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벚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여성 들로는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온나산노미야(女三宮), 오치바노미야(落葉の宮), 제3부의 다마카쓰라(玉鬘)의 딸 오이기미(大君), 우지(宇治)의 오이기미(大君)와 나카노기미(中君)를 들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 여성들 중 먼저 무라사키노우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겐지(源氏)와 무라사키노우에의 첫 만남은 그가 학질에 걸려 찾아간 기타야마(北山)에서 이루어진다. 그가 찾아간 기타야마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벚꽃이 떠오르는 공간이었다.

산의 벚꽃은 아직 한창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안개 낀 경치도 훤히 있어 보이고, 이렇게 밖으로 다니시는 것도 좀처럼 없는 일인데다가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山の桜はまだ盛りにて、入りもておはするままに、霞のたたずまひもをかしよう見ゆれば、かかるありさまもならひたまはず、ところせき御身にて、めづらしう思されけり。(若紫①200) 10)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무라사키노우에를 자신이 돌보고자, 그녀의 외조모인 야마기미(尼君)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벚꽃의 모습은 나에게서 떠나지를 앓는구나. 내 마음 전부를 그곳에 두고 왔는데(面影は身をも離れず山桜心のかぎりとめて来しかど)」(若紫①228) 라고 편지로 전하고 있다. 여기

9) 室城秀之『うつほ物語』おうふう, 2001

10) 본문은 阿部秋夫, 秋山虔他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源氏物語』①-⑥, 小学館, 1994-1998에서 인용하고 권명, 권수, 페이지를 명기하였다.



에서 겐지는 「山桜」를 무라사키노우에에 비유하여 나의 몸과 마음이 벚꽃에 사로잡혀 있다고 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겐지는 무라사키노우에를 벚꽃에 비유하고 있고, 노와키권(野分卷)에서도 유기리(夕霧)가 그녀를 벚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병풍도 한쪽으로 접어놓아서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히사시노마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다른 누구와 혼동될 리도 없이 기품 있고 아름다워 확 알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봄의 새벽녘의 안개 사이에서 아름다운 울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을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얼굴까지 내리덮일 것처럼 상냥하고 정이 넘치는 매력이 빛을 발하여 더 없이 훌륭한 모습이었다.

御屏風も、風のいたく吹きければ、押したたみ寄せたるに、見通しあらはなる廂の御座にゐたまへる人、ものに紛るべくもあらず、氣高ききよらに、さとにほふ心地して、春の曙の霞の間より、おもしろき樺桜の咲き乱れたるを見る心地す。あぢきなく、見たてまつるわが顔にも移り来るやうに、愛敬はにほひ散りて、またなくめづらしき人の御さまなり。(野分③265)

유기리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처음으로 계모인 무라사키노우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는 8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모를 봄의 새벽녘에 안개 낀 사이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울벚나무(樺桜)」에 비유하고 있다(밑줄부분). 무라사키노우에의 외모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긴 유기리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녀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된다.

이처럼 무라사키노우에의 용모의 아름다움은 겐지와 유기리의 눈은 통해서 증명되고 있으나, 그녀는 외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인격에 의해서도 세상 사람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제2부에서 로쿠조미야슨도코로(六条御息所)의 원령(怨靈) 때문에 숨을 거둔 무라사키노우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지. 「무엇을 벚꽃에」라는 옛말도 있는 것은(かく足らひぬる人はかならずえ

長からぬことなり。「何を桜に」といふ古言もあるは)」(若菜下④ 238) 이라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단명한다는 속설을『고킨슈』의「기다리라고 하여 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처럼 벚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텐데(待てといふに散らでしとまるものならばなにを桜に思ひまさまし)」(70) 라는 와카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와카에서도 벚꽃의 지는 속성이 무라사키노우에의 죽음과 연결되어 표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쉽게 저버리고 마는 벚꽃이기 때문에 마음이 끝된다는 점을 무라사키노우에의 이상성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점을 통해서 무라사키노우에는 내면과 외면의 이상성을 두루 갖춘 여성임이 일괄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여성과 겐지와외의 첫 만남이 안개 속 벚꽃이 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기리의 시점을 통해서는 무라사키노우에가 안개 속에 핀 벚꽃으로 표현됨으로서 유기리의 계모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 IV. 반복되는 모티브

제2부에서 벚꽃으로 비유된 인물로 온나산노미야(女三宮)를 들 수 있다. 분장에서는 그녀가 어떤 장면에서 벚꽃으로 비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모티브가 제3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무라사키노우에의 벚꽃에 대한 비유와 다른 여성들, 특히 2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비유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온나가쿠(女樂)가 있었던 날, 겐지가 무라사키노우에를 벚꽃에 비유하며 칭찬했던 것과는 달리 온나산노미야에 대해서는「2월 20일경의 푸른 버드나무가 가지를 조금 늘어뜨리기 시작한 모습으로, 휘파람새가 뒤섞여 나는 날개 짓에도 흐트러져 버릴 정도로 가냘프게 보인다(二月の中の十日ばかりの青柳の、わづかにしだりはじめたらむ心地して、鶯の羽風にも乱れぬべくあえかに見えたまふ)」(若菜下④191)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내면의 미숙함과 경솔함 때문에

겐지는 그녀의 가녀린 외모만을 평가하여 「푸른 버드나무(靑柳)」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2부에서 온나산노미야와의 결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가시와기(柏木)는 이 황녀(皇女)에 대한 연정을 남몰래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미야에 대한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게마리(蹴鞠) 놀이의 장면이다.

다이쇼도 간노기미도 모두 마당에 내려가시어 뒤라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벚꽃 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신 모습은 저녁 어스름 속에서 두드러져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그다지 보기 좋지 않고 떠들썩하여 정신없는 놀이이기는 하지만 장소도 장소이고 사람도 사람인만큼 흥취를 돋웠다. 운치 있는 마당의 나무들 사이로 진한 안개가 끼어 있는데 형형색색의 꽃봉오리가 부풀어 있는 꽃나무들…… 계단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향하여 피어 있는 벚꽃 그늘 아래에 모여서 사람들이 꽃에 관해서는 잊어버린 채 몰두해 있는데, 오도노도 효부쿄노미야도 한쪽에 있는 난간에 나오셔서 바라보고 계신다.

大將も督の君も、みな下りたまひて、えならぬ花の蔭にさまよひたまふ夕映えいときよげなり。をさをさ、さまよく静かならぬ乱れ事なめれど、所がら人がらなりけり。ゆゑある庭の木立のいたく霞こめたるに、色々紐ときわたる花の木ども……御階の間に当たれる桜の蔭によりて、人々、花の上も忘れて心に入れたるを、大殿も宮も隅の高欄に出でて御覧ず。(若菜上④ 138~39)

인용본문은 가시와기가 온나산노미야의 모습을 엿보게 된 게마리 장면의 정경묘사로, 시간은 벚꽃이 피고 안개가 낀 저녁 무렵으로 설정되어 있다. 모두 놀이에 몰입하여 바람에 저 버리는 벚꽃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유기리와 가시와기는 지는 꽃잎을 맞으며 아쉬워하고 있다. 가시와기는 「꽃이 심하게 떨어지는군요. 바람도 벚꽃을 피해가면 좋을텐데(花乱り)がはしく散るめりや。桜は避きてこそ」( 앞의 권④140 ) 라고 중얼거리고는 그에 이끌리듯이 온나산노미야를 우연히 엿보게 된다. 밑줄부분 「벚꽃을 피해가면 좋

을텐데(桜は避きてこそ)」는 『고킨슈』의 「봄바람이여, 벚꽃주변을 피해서 불어라. 벚꽃이 스스로 저 버리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春風は花のあたりをよきて吹け心づからやうつろふと見む)」(『고킨슈』85)라는 와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나산노미야를 의식한 표현이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엿본 가시와기는 이후 「완전히 풀이 죽어 걸핏하면 벚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いといたく思ひしめりて、ややもすれば、花の木に目をつけてながめやる)」(앞의 권④143)라는 서술처럼 넋이 나간 상태가 되어 벚꽃을 바라보며 온나산노미야를 떠올린다. 게마리 놀이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유기리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온나산노미야를 소홀히 여기는 겐지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낸다.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니는 휘파람새는 왜 벚꽃을 특별히 여겨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지 않는가.

벚꽃에 마음을 두지 않는 봄새의 마음이여.

いかなれば花に木づたふ鶯の桜をわきてねぐらとはせぬ  
春の鳥の、桜ひとつにとまらぬ心よ。(앞의 권④146)

이 노래와 그와 이어지는 서술에서 「벚꽃(桜)」은 온나산노미야를, 「휘파람새(鶯)」는 겐지를 뜻한다. 가시와기는 겐지가 부인들 중에서도 황녀인 온나산노미야를 특별히 아끼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겐지는 그녀가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게마리 장면에서는 안개 낀 정원의 지는 벚꽃 속에서 가시와기의 엿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개와 그 속에서 지는 벚꽃이라는 표현의 결합에 의해 가시와기의 눈에 비친 온나산노미야가 이상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온나산노미야가 이상적인 여성으로 인식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는 미야가 겐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뚜렷이 의식하게 된다. 또한 그가 온나산노미야를 엿보는 이 장면에서 벚꽃은 남성이 손에 넣기 힘든 이상적인 여성의 비유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처럼 관능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관능적인 장면을 배경으로 심한 마음의 혼란을

경험하는 가시와기의 상태는「흔들리다(乱りがはし)」라는 표현으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장면에서 이 표현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벚꽃이 흠날리는 저녁 무렵, 자신이 꿈에 그리던 여성을 보고 완전히 매료된 가시와기의 심적 변화는 독자에게 그의 정신의 불안정함, 나아가 이 사랑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은 불길함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가시와기는 온나산노미야에게 접근하여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애원하면서 미야의 유모의 딸인 고지주(小侍従)에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예전부터 이처럼 목숨이 단축될 정도로 (미야를) 그리워해 왔는데, 당신처럼 친한 연줄이 있어서 미야의 모습을 전해 듣거나 또는 나의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당신이 들어주기도 하여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보람도 전혀 느낄 수 없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昔より、かく命もたふまじく思ふことを、かかる親しきよすがありて、御ありさまを聞き伝へ、たへぬ心のほどをも聞こしめさせて頼もしきに、さらにそのしるしのなければ、いみじくなむつらき。(若菜下④218)

자신이 미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하여 수명이 줄어들 정도라며 죽음까지 언급하는 가시와기는 급기야 온나산노미야와의 대면 장면에서 그를 거부하는 온나산노미야를 향해,

저는 목숨을 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전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 자비심과 맞바꿔서 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身をいたづらにやはなしはてぬ。いと棄てがたきによりてこそ、かくまでもはべれ、今宵に限りはべりなむもいみじくな

11) 河添房江, 상계서, p. 32는 이 작품의 표현의 특질로서 단순히 꽃만 떼어내어 비유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마토에(大和絵)와 같은 하나의 경치(景)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む。つゆにても御心ゆるしたまふさまならば、それにかへつる  
にても棄てはべりなまし (앞의권④227)

라며 자신의 파멸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가시와기는 이 장면 직후에 온나산노미야와 밀통을 저지르고, 게마리 놀이 장면에서 암시된 광기적인 사랑은 그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 물론 가시와기의 죽음은 겐지가 이 두 사람의 밀통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직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게마리 장면에서의 장면묘사-안개에 쌓여 흩날리는 벚꽃-가 가시와기의 사랑의 종말이 어두울 것이라는 일종의 파멸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가시와기 모노가타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이상적인 여성인 온나산노미야가 겐지에게는 「푸른 버드나무(靑柳)」로 표현되는 여성, 즉 가시와기의 사랑이 그의 여성에 대한 내면의 오인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 결과 가시와기는 온나산노미야 대신 그녀와 자매인 황녀 오치바노미야(落葉の宮)와 결혼을 하고도 그에 만족하지 못한 채 온나산노미야에게만 집착한다. 그는 밀통을 저지른 후 온나산노미야에게 편지를 보낸다. 온나산노미야는 이 편지를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겐지에게 들키고 마는데, 이 이야기를 고지주에게 전해 들은 그는 그제서야 온나산노미야가 자신이 생각했던 여성이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2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기는「이처럼 그분이 조금은 그리워 해 주실 동안에 죽어서, 잠시 동안이라도 가없게 여겨주실 분이 계신 것을,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이 몸을 소진해버린 증거로 삼아야지(かく人にもすこしうち俵ばれぬべきほどにて、なげのあはれをもかけたまふ人あらむをこそは、一つ思ひに燃えぬしにはせめ)(柏木④290)」라고 하듯이 이 사랑에 자신이 목숨을 바친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앞서 인용한 『만요슈』에서 두 청년의 집착으로 인해 사쿠라코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것이 지는(「散る」) 벚꽃을 통해서 상징되었다는 것을 논했는데, 이 노래에서의 사쿠라코는 아름다운 여성일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인해 남성들과 맺어지지 못한 여성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가시와기 모노가타리에서는 안개에 싸여 지는 벚꽃이라는 것이 앞서 예로 든 『고킨슈』684번가 「봄

안개가 길게 끼어있는 산의 벚꽃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데 것처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당신입니다(春霞たなびく山のさくら花見れどもあかぬ君にもあるかな)」의 표현처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남성의 집착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만요슈』와 가시와기 모노가타리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여성의 죽음이 벚꽃이 지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후자의 경우, 지는 벚꽃이 그로 비유된 여성의 죽음으로 직접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지는 벚꽃 속에서 남성의 옛보기가 이루어진다는 배경 설정을 통해 오히려 그 여성에게 빠져든 남성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겐지모노가타리』가 추구한 새로운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3부에서도 이와 같은 가시와기 모노가타리 속의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히게쿠로(鬚黒)와 다마카즈라(玉鬚)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오이기미(大君)는 여러 남성들로부터 구혼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기리의 아들인 구로우도쇼쇼(蔵人少将)도 포함되어 있었다. 3월의 어느 날, 벚꽃을 걸고 오이기미와 나카노기미(中君)가 내기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쇼쇼(少将)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저녁 안개에 휩싸여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사쿠라 가사네의 호소나가의 색깔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벚꽃이 저 버린 후에 그것의 대신으로 의지하고 싶을 정도로 빛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린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견딜 수가 없었다.

夕暮れの霞の紛れはさやかならねど、つくづくと見れば、桜色の文目もそれと見分きつ。げに散りなむ後の形見にも見まほしく、にほひ多く見えたまふを、いとど異ざまになりたまひなんことわびしく思ひまさらる。

(竹河⑤79)

이 장면에서도 안개와 지는 벚꽃이라는 표현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다. 밑줄 부분은 앞서 인용한 『고킨슈』66번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언제까지나

오이기미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다는 쇼쇼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쇼쇼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오이기미는 그러나 결국 레이제이인(冷泉院)과 혼인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쇼쇼는 가시와기와 마찬가지로 광기적인 사랑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기에 이른다.

적어도 그때와 같은 꿈이라도 꾸고 싶구나. 아아, 이제부터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원망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남는다는 것이 사실이구나.……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전부 사라져버렸다. 그래도 히메기미(오이기미)가 내기 바둑에서 저 버린 것은 가엾은 일이구나. 나를 부르셨다면 눈짓이라도 해서 상대도 되지 않았을 것을.

さばかりの夢をだにまた見てしがな。あはれ、何を頼みにて生きたらむ。かう聞こゆることも残りすくなうおぼゆれば。つらきもあはれといふことこそまことなりけれ」と、いとまめだちて言ふ。……いでや、さばれや。今は限りの身なれば、もの恐ろしくもあらずなりにたり。さても負けたまひしこそ、いといとほしかりしか。おいらかに召し入れてやは。目ははせてまつらましかば、こよなからましものを (앞의 권⑤84-85)

가오루를 상대로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는 쇼쇼는 밑줄부분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제2부의 가시와기가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죽는 이유를 온나산노미야와의 사랑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제 이 세상과도 작별이라고 나를 태운 연기도 타올라 땃혀 있는데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꽃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적어도 불쌍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가 선택한 황천길을 밝히는 빛으로 삼고 싶습니다. (「いまはとて燃えむ煙もむすばほれ絶えぬ思ひのなほや残らむ あはれとだにのたまはせよ。心のどめて、人やりならぬ闇にまどはむ道の光にもしはべらむ」と聞こえたまふ)」(柏木④291)라며 그녀의 동정(「아는



れ」)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쇼쇼 역시 오이기미가 시집가는 날, 「이제 마지막이라고 포기해 버린 목숨이지만, 그래도 역시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불쌍하게 여긴다고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 그 말에 목숨도 연명하여 잡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今は限りと思ひはつる命のさすがに悲しきを。あはれと思ふ、とばかりだに一言のたまはせば、それにかげとどめられて、しばしもながらへやせん)」(竹河⑤89) 라는 편지를 보낸다. 이후 쇼쇼는 사다이진(左大臣)의 딸을 아내로 맞으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남자아이까지 낳은 오이기미에 대해서 여전히 홀로 사랑을 불태운다.

쇼쇼가 오이기미를 잊지 못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안개 낀 저녁 무렵에 그녀의 모습을 엿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엿보기 장면에서도 역시 쇼쇼의 광기는 그의 정신의 이상, 나아가 이 사랑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앞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기리가 무라사키노우에를 목격하고 그녀의 모습에서 「올벗나무」를 연상한 것과, 가시와기, 구로우도쇼쇼의 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개에 가려 있고 곧 저버릴 벚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의 대상을 가리키며 그로 인한 남성의 좌절이 이야기의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면의 설정과 그로 인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모노가타리 속에서 반복적인 모티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 V. 벚꽃의 상징성과 제2부의 구조

유기리는 앞서 살펴본 노와키권의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쿠조인(六条院)의 관찰차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친구인 가시와기가 온나산노미야의 외모에 반하여 자멸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무라사키노우에의 마음이나 행동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의 눈에 띄거나 소문이 나는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조용히 침착하게 계신 것을

근본으로 삼아, 과연 상냥하게, 타인을 무시하는 일도 없고, 게다가 품위 있게 행동하신다고 생각하니 이전에 봤던 그 모습도 잊지 못하고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다(紫の御用意、気色の、ここの年経ぬれど、ともかくも漏り出で、見え聞えたるところなく、しづやかなるを本として、さすがに心うつくしう、人をも消たず身をもやむごとなく、心にくくもてなしそへたまへることと、見し面影も忘れがたくのみなむ思ひ出でられける)」(若菜上④134) 라며 무라사키노우에와 온나산노미야의 내면의 차이를 실감한다. 일찍부터「이처럼 마음씨가 상냥한 분과 서로 맺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心ばへのかやうにやはらかならむ人をこそあひ思はめと思ふ)」(少女③67) 라고 하듯이 자신을 양육한 하나치루사토(花散里)의 예를 보고 여성은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기리는 가시와기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여성관을 확고히 해 나간다.

죽음을 앞둔 가시와기는 오치바노미야를 염려하여 유기리에게 그녀를 보살펴주도록 부탁한다. 이후 유기리는 친구의 유언대로 오치바노미야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녀의 어머니인 이치조미야스도코로(一条御息所)는 그의 방문을 기쁘게 여기며 서로가 사위와 친구를 잃은 슬픔을 위로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뜨면서 유기리는 정원에 있는 벚꽃나무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분은 다이쇼보다 5, 6세 위셨지만 그래도 젊고 우아하며 친근한 분이 셨다. 이 다이쇼는 위엄이 있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얼굴만은 어리고 특히 기품이 넘치셨다. (1) 젊은 노부들은 슬픈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되어 그를 배웅하였다. 다이쇼는 정원의 벚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시고 「올해만은」이라고 잠시 생각이 떠오르지만 불길하여 (2)「보는 것은」이라고 중얼거리며,

그때가 되면 벚꽃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색으로 피겠지. 한쪽가지가 말라버린 집의 벚꽃도

かの君は、伍六年のほどの年長なりしかど、なほいと若やかになまめき、あいだれてものしたまひし。これは、いとすくよ

かに重々しく、男々しきけはひして、顔のみぞいと若うきよらなること、人にすぐれたまへる。(1)若き人々は、もの悲しさも少し紛れて見出したてまつる。御前近き桜のいとおもしろきを、「今年ばかりは」とうちおぼゆるも、いまいましき筋なりければ、(2)「あひ見むことは」と口すさびて、

時しあればかはらぬ色にほひけり片枝枯れにし宿の桜も

( 柏木④332 )

밑줄부분 (2)는 「春ごとに花のさかりはありなめどあひ見むことは命なりけり」(97)라는 『고킨슈』의 와카에 의한 것으로, 봄이 되면 꽃은 반드시 피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꽃이 필 시기가 되면 한쪽가지가 말라버린 벚꽃도 아름답게 필 것이라는 유기리의 와카로 연결되고 있다. 한쪽가지가 말라버린 벚꽃은 다름 아닌 남편을 잃은 오치바노미야를 상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기리가 오치바노미야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의 노보(女房)들의 반응으로 판단할 때 모노가타리에서 유기리는 가시와기의 인상과 오버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이 벚꽃의 비유는 유기리에게 오치바노미야가 어떠한 의미를 지닌 여성인지를 가르키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오치바노미야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판단하여 구애할 것임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기리의 다음 방문에서 그가 「용모는 더할 나위가 없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容貌ぞいとまほにはえものしたまふまじけれど)」라고 하면서 미야의 용모가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지만, 「마음만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다(ただ心ばせのみこそ、言ひもてゆかむには、やむごとなかるべけれ)」( 앞의 권④339 ) 라며 그녀의 성품은 훌륭하다고 판단하여 구혼자로 변신한 점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는 오치바노미야의 용모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가시와기가 그녀를 기피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성품을 높이 평가한다. 이것은 용모보다 심성이 중요

12) 小町谷照彦「夕霧の造型と和歌—落葉の宮物語をめぐって」東京大学出版会, 1984, p.176

하다는 유기리의 여성관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오치바노미야와 유기리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건을 둘러싸고 오치바노미야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인식한 이치조미야스도코로는 「역시 숙세라고는 하지만 의외로 사려가 깊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なほ、御宿世とはいひながら、思はずに心幼くて、人のもどきを負ひたまふべきことを)」(夕霧④435)이라고 자신의 딸이 사려분별력이 떨어짐을 한탄하고 있다.<sup>13)</sup> 이와 같이 여러 인물들에 의한 복합적인 시각에 의해 유기리의 오치바노미야에 대한 이상화 역시 가시와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오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제2부에서 여성이 벚꽃으로 비유되고 있는 예는 그 대상이 보는 이에게 이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가시와기와 유기리의 경우, 이상적인 여성을 표현하는 벚꽃이 상대 여성의 허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겐지에게는 「푸른 버드나무(青柳)」로 간주되었던 온나산노미야가 가시와기에게는 「벚꽃(桜)」으로, 또 그에게는 「낙엽(落葉)」으로 판단되었던 온나니노미야(女二宮)가 유기리에게는 「벚꽃(桜)」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벚꽃의 상징성은 제2부 전체의 어긋나는 인간관계와 그로인한 모노가타리의 아이러니한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겐지모노가타리』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벚꽃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모노가타리의 구조 속에서 표현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 VI. 벚꽃의 비유표현의 부재-우키후네의 존재의미-

제3부의 벚꽃의 비유표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13) 金静熙「夕霧と落葉の宮の結婚—錯綜する人間関係—」『国語と国文学』2006, 4, p.22-25

않다. 특히 『겐지모노가타리』안의 비유표현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온가와조에 후사에 쓰는 3부의 꽃의 용례를 살펴본 후, 「로쿠조인 세계에서 그 중핵에 온나기미의 주제적 위상을 내포했던 꽃의 직유는 제3부가 되면 그 다면성을 잃고 유형화되어 간다(六条院世界において、その核に女君の主題的位相をも封じ込めていた花の直喩は、第三部にいたるとその多面性をうしない、類型的なものに墮していく)」라고 벚꽃을 포함한 꽃의 비유에 대해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으로 3부에서 역시 여성에 대한 벚꽃의 비유표현은 모노가타리 구조와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제3부의 벚꽃의 비유표현을 살펴보고, 제3부의 인간관계와 여성들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모노가타리의 전편에서는 겐지를 둘러싼 수많은 여성이 등장하는 것에 반해, 제3부에서 가오루(薫)와 니오우미야(匂宮)와 직접 인연을 맺는 여성 중 모노가타리에서 주인공으로 불릴만한 인물은 오이기미(大君), 나카노기미(中君), 그리고 우키후네(浮舟)이다. 그러나 이중 벚꽃과 연관되어 있는 예가 보이는 것은 오이기미와 나카노기미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지주조(宇治十帖)의 후반부에서 주인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키후네에게만 벚꽃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오이기미, 나카노기미를 둘러싼 벚꽃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니오우미야는 하세(初瀬)에 참배하고 난 후 돌아오는 길에 우지(宇治)에서 머물게 된다. 이미 가오루를 통해 우지의 히메기미(姫君)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강 건너편에 있는 하치노미야(八の宮)와 편지를 주고받는다.

꽤 멀리까지 일대가 안개로 가득 차 있는 하늘에, 지는 벚꽃도 있는가 하면 피기 시작한 것도 있어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강변의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모습이 수면에 비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정경이어서, 이러한 경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니오우미야)은 이렇게 보기 힘든 광경을 두고 쉽게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 미야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신분인 것이 답답하여 최소한 이런 기회라도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에서 훌륭한 벚꽃가지를 하나를 꺾어 같이 동행한 덴죠와라와 중 귀여운

아이를 심부름꾼으로 삼아 하치노미야 댁에 보냈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아름다운 히메기미들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와 똑같은 벚꽃을 나도 머리장식으로 쓰려고 꺾어버렸습니다.

はるばると霞みわたれる空に、散る桜あれば今開けそむるなどいろいろ見わたさるるに、川ぞひ柳の起き臥しなびく水影などおろかならずをかしきを、見ならひたまはぬ人は、いとめづらしく見棄てがたしと思さる。……かの宮は、まいて、かやすきほどならぬ御身を\_さへところせく思さるるを、かかるをりにだにとおびかねたまひて、おもしろき花の枝を折らせたまひて、御供にさぶらふ上童のをかしきして奉りたまふ。

山桜にほふあたりにたづねきておなじかざしを折りてける  
かな (権本⑤172-174)

함께 우지에 머물게 된 젊은 남성들도 하치노미야의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 는 가운데, 황자(皇子)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처신할 수 없는 니오우미야는 편지를 통해 우지의 히메기미에 대한 호기심을 와카로 표현한다. 때는 봄으로 강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지는 벚꽃과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벚꽃이 혼재하고 있는데(밑줄부분), 미야(宮)는 그 중 특별한 것을 골라 가치를 꺾어서 편지와 함께 보낸다. 와카 속에서 벚꽃은 우지의 오이기미와 나카노기미에 빗대어 표현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니오우미야가 자매들 중 누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치노미야는 이에 대한 답장을 나카노기미에게 쓰도록 한다. 하치노미야의 행위는 두 사람 관계의 발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계기로 니오우미야와 나카노기미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것은 하치노미야의 사후에 본격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1년 후 아버지를 여의고 남겨진 히메기미에게 니오우미야는 작년에 있었던 와카의 증답을 떠올리며(「벚꽃이 한창 필 무렵, 미야는 작년 봄의 머리장식에 관한 노래를 주고받은 것을 떠올리시고(花盛りのころ、宮、かざしを思し出でて)」(앞의 권⑤214)) 나카노기미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전에는 여행 도중에 멀리서 바라본 벚꽃을 올봄에는 안개로 방해받지 않고 직접 이 손으로 벚꽃을 꺾고 싶습니다.

つてに見し宿の桜をこの春はかすみえへだてず折りてかざさむ( 앞의 권⑤214 )

이 노래에서 벚꽃은 나카노기미를 가리키고 있어 니오우미야가 그녀와 인연을 맺고 싶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오우미야와 나카노기미는 가오루의 안내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황자의 신분으로 사랑하면서도 우지를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니오우미야는 이후에도 나카노기미를 벚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니오우미야가 자신의 사랑이 명백하지 않은 가운데 우지의 자매들을 벚꽃으로 표현한 것에서 점차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나카노기미에게로 그 대상이 좁혀지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모노가타리의 전개상황에 따라 나카노기미가 니오우미야의 이상적인 여성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 벚꽃의 비유표현으로 명백해지는 것이다.

오이기미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니오우미야에 의해 벚꽃으로 표현되고 있다. 가오루가 그녀를 벚꽃으로 표현한 것은 오이기미가 죽은 후 나카노기미가 상경하여 니오우미야의 부인으로 니조인(二条院)에 자리 잡으려고 할 무렵이다. 가오루는 그녀가 니조인에 도착한 모습을 전해 듣고는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도 나카노기미를 통해 오이기미를 연상하고는 그녀와 니오우미야를 혼인시킨 것에 대해 후회한다. 그 직후의 장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묘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벚꽃이 한창 필 무렵, 니조인의 벚꽃을 바라보면서 (1)주인 없는 집이 우선 생각나서 (2)「마음편히」등을 혼자 읊조리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미야가 계시는 곳으로 건너갔다.

花盛りのほど、二条院の桜を見やりたまふに、(1)主なき宿のまづ思ひやられたまへば、(2)「心やすくや」など独りごちあまりて、宮の御もとに参りたまへり。(早蕨⑥367)

3월 초순 경 활짝 피어 있는 니조인의 벚꽃을 바라보며, 먼저 가오루는 우지의 빈집을 떠올리고 있다. 밑줄부분(1)과 (2)는 『슈이슈(拾遺集)』의 「띠가 뒤덮여 황폐해져 주인도 없는 집의 벚꽃은 보는 이도 없기에 마음 편히 바람에 날려 쉽게 저버리는 것인가 ( 浅茅原主なき宿の桜花心やすくや風に散るらん )」(62)라는 노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니조인의 벚꽃을 바라보는 시선은 나카노기미에 대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가오루가 이제 비어버린 우지의 집을 연상하는 것은 나카노기미의 부재 뿐만 아니라 오이기미가 죽은 사실을 재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벚꽃은 여성의 직유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가오루의 나카노기미에 대한 마음을 가리키지만, 그 뒤에는 죽은 오이기미에 대한 그리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은 그가 이후 나카노기미에게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제3부의 모노가타리에서 벚꽃 역시 니오우미야와 가오루의 이상적인 여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노가타리의 전개 과정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남성에게 의해 벚꽃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지의 자매와는 대조적으로 야도리기권에서 등장하는 우키후네는 가오루와 니오우미야와 동시에 맺어지면서도 벚꽃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가오루에게는 오이기미의 「인형(形代, なでもの)」으로서 표현되고 있고, 정열적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니오우미야조차도 실제로 그녀에게 메시우도(召人)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다.<sup>14)</sup> 제3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자 두 남성과 인연을 맺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 입수에 이르게 되는 우키후네지만, 그녀는 끝내 벚꽃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앞서 예로 든 『만요슈』의 사쿠라코의 일화는 선행연구에서 우키후네와 니오우미야, 가오루의 모노가타리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만요슈』의 경우, 두 남성에게 이상적인 여성으로 여겨져 벚꽃으로 표현된 사쿠라코와는 달리, 우키후네 모노가타리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선행 작품의

14) 三田村雅子「召人のまなざしから」『源氏物語 感覚の論理』有精堂, 1996, p.302-303



이야기를 계승하면서도 헤이안 시대의 시대상을 모노가타리에 반영하여 이야기를 재창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우키후네는 아버지 하치노미야에게도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분이 낮은 어머니 손에서 양육된 여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돌보아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가오루는 그녀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보장하는 인물이었지만, 그에게 우키후네는 어디까지나 죽은 오이기미의 대신으로, 따라서 그녀에 대한 애정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정열적인 사랑을 고백한 니오우미야는 쉽게 변심해 버릴 수 있는 의지할 수 없는 남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키후네의 고통은 단순한 사랑의 삼각관계를 뛰어넘어 존재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러한 모노가타리의 전개 속에서 우키후네에 대한 벚꽃 표현의 부재는 그녀의 존재의미, 즉 그녀가 남성들에게 오이기미, 나카노기미와 같은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 남성 사이에서 번민하다가 입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모노가타리에서의 그녀의 위상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Ⅶ. 결론

일본의 고대에 있어서 벚꽃은 봄의 대표적인 경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직유표현으로 쓰이거나 또는 작자의 애착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벚꽃이 작자의 애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활짝 피었다가 금방 지고 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벚꽃의 이미지는 『고킨슈』에 이르러 더욱 정형화 되어 간다. 『고킨슈』의 와카는 실제로 눈으로 본 경물을 노래로 읊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미 고대의 『만요슈』의 예로부터 금새 저 버리는 벚꽃의 아름다움과 허무함이라는 이중성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고킨슈』의 와카에 있어서 정형화 되어, 피어 있는 벚꽃보다도 지기 쉬운 속성에 초점을 맞춰져 구상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킨슈』의 와카 세계에서는 벚꽃과 안개의 결합

이 이루어져, 안개에 가려 볼 수 없는 벚꽃,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동시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과 아름다움이 보는 이를 매료시키고 있다. 이러한 벚꽃의 이미지를 계승·발전시킨 것이 바로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할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에는 다양한 비유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벚꽃은 모노가타리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노가타리의 구조와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까지도 읽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대에 있어서 여성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벚꽃의 단순한 직유가 이 작품 안에서는 인성과 외모의 문제를 동시에 부각시키는 장치로 기능하여 주제와 결부되어 간다. 또한 벚꽃으로 표현된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서로 어긋나고 있어 모노가타리의 아이러니 한 구조를 읽어 내는 키워드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겐지모노가타리』 이전의 모노가타리 문학이 『니혼쇼키』, 『만요슈』, 『고킨슈』의 벚꽃의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겐지모노가타리』의 벚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성은 이 모노가타리에 의한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작품의 중층적 표현을 지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 ❖ 참 고 문 헌

阿部秋夫, 秋山虔他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 ①-⑥, 小学館, 1994-1998

風巻景次郎 『風巻景次郎全集』 4, 桜楓社, 1969

河添房江 「花の喩の表現史」 『源氏物語表現史』 翰林書房, 1998

金静熙 「夕霧と落葉の宮の結婚—錯綜する人間関係—」 『国語と国文学』 2006, 4

- 小島憲之, 直木孝次郎他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 ②, 小学館, 1996
- 小町谷照彦 「夕霧の造型と和歌—落葉の宮物語をめぐって」 東京大学出版会, 1984
- 斎藤正二 『植物と日本文化』 八坂書房, 1979
- 中西進校注 『万葉集』 ①—④, 講談社文庫, 2002
- 原岡文子 「『源氏物語』の「桜」考」 『源氏物語の人物と表現』 翰林書房, 2003
- 平沢竜介 「古今集における想像力—桜の歌群の分析を通して—」 『日本文学』 1984, 9
- 広川勝美編 『源氏物語の植物』 笠間書院, 1982
- 松田武夫 『古今集の構造に関する研究』 風間書房, 1965
- 三田村雅子 「召人のまなざしから」 『源氏物語 感覚の論理』 有精堂, 1996
- 室城秀之 『うつほ物語』 おうふう, 2001
- 山口仲美 「源氏物語の比喩表現」 『平安文学の文体の研究』 明治書院, 1984

❖ ABSTRACT

## The symbolism of cherry blossoms in The Tale of Genji

Kim Jung Hee

This thesis is to argue what is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of cherry blossoms appearing in 『*Genjimonogatari*(源氏物語)』 in relation with the structure of Monogatari after checking each example.

First we reviewed some examples of the works before 『*Genjimonogatari*』, and clarified that cherry blossoms were used as metaphorical expressions of a beautiful woman in *waka*(和歌), and that at the same time cherry blossoms functioned as the symbol of futility, anxiety together with beauty. Especially in 『*Kokinshu*(古今集)』 we identified that there increased the examples where the combination of the expression as falling cherry blossoms, and fog and cherry blossoms was done.

In 『*Genjimonogatari*』 we examined the examples of cherry blossoms of Chapter 1, Chapter 2, and clarified that Murasakinoue(紫の上) was a woman with an ideal character in looks and inner personality through the diverse viewpoints of characters.

In Monogatari of Kashiwagi(柏木) of Chapter 2, the scene where he peeped Onnasannomiya(女三宮) was composed by the combination of cherry blossoms and fog, and we pointed out that we could feel the anxiety, ominousness of the love of the couple through this scene. And the composition of these scenes was also repeated in Monogatari of Chapter 3, and we discussed through these examples that the figurative expressions of cherry blossoms were used about the object of the love not to be realized.

Next, we checked that Yugiri(夕霧) who had observed Kashiwagi's love toward Onnasannomiya gave a figurative expression of Kashiwagi's wife Ochibanomiya(落葉の宮) as cherry blossoms. Although Genji(源氏) realized Onnasannomiya's immaturity, Kashiwagi compared her to 「cherry blossoms」, and Yoogiri compared the woman whom Kashiwagi recognized as 「Ochiba(落

葉)」 to 「cherry blossoms」, through which we have read the twisted human relation and ironical structure of Chapter 2.

Finally, we checked the examples of cherry blossoms in Ooigimi(大君), Nakanokimi(中君), Ukihune(浮舟) who were Ujijujo's heroines. Ooigimi and Nakanokimi were expressed as cherry blossoms by Kaoru(薫) and Nioumiya(匂宮) and were disclosed as their ideal women. In contrast, Ukihune had something to do with two men with no such figurative expression, so it was pointed out that the absence of such metaphorical expression clarified that the meaning of her existence was nothing but the meaning as a mesiudo(召人).

---

#### Key Words

벚꽃, 이상성, 모노가타리 구조, 반복, 표현의 부재

Cherry blossoms, Ideal character, Monogatari structure, Repetition, Absence of expression

논문접수일: 2011. 10. 25.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